

‘IT강국도약을 위한 2002년 정보통신 정책방향’



본 협회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하는 「제15회 정보통신포럼」이 지난 27일 하얏트호텔 로터스 룸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이 초청돼 'IT강국도약을 위한 2002년 정보통신 정책방향'을 밝혔다.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신재철 한국IBM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정문식 이레전자산업 사장, 정용섭 정보보호 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를 요약했다. <편집자 주>

유·무선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전국 모든 면(面) 지역까지 확대 구축하여 초고속인터넷 이용 1천만가구(전체의 70%)를 달성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고품질의 미래형 인터넷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시범 제공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동 중에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무선 정보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3세대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용률을 인구대비 90%로 확대하는 한편 공항·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저렴하게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무선 LAN 이용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지식과 정보를 막힘없이 활용하도록 세계 최초 유·무선 통합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운영중인 무선 인터넷 망을 유·무선 사업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유·무선 인터넷간 원활히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유무선, 음성 데이터, 유무선 통합 등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촉진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후발사업자에게 다소 불리한 통신망 상호접속제도와 통신사업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선발사업자의 통신시설을 후발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불공정 경쟁행위를 방지하고, 통신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통신의 정부보유주식(28.4%)을 올해 6월말까지 내국인에게 완전 매각하여 민영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IMT-2000서비스가 기존대역 및 2GHz대역에서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동기식 IMT-2000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비동기식 장비개발 등 서비스 개시에 차질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가능한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정립하고, 사업자 식별번호 부여,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 정착을 통한 생산성과 국민 편익 제고

▲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정부 11대 중점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금년 중 민원혁신서비스(G4C), 정부통합전자 조달서비스(G2B) 등에 정보화 촉진기금 1,06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모든 국민이 정보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00만 명 정보화교육 계획'을 상반기 중 조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실용위주의 '2단계 국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반영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300만개 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법률·회계정보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사이버테러 방지와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융·통신 등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이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대책(상반기 중

주민등록 등 4대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스팸 메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 보호 등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차세대 핵심 IT분야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

▲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중점 개발

선진국보다 앞선 기술개발 목표 설정과 집중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 단기 과제에서 장기·대형 국책과제 중심으로 R&D 틀을 개편하고, 차세대 IT산업의 기반이 되는 5대 핵심 IT선도기술(4세대 이동통신, 초고속광가입자망 기술, SmarTV, 차세대인터넷서버, 차세대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에 향후 5년간 집중 투자(2002년 818억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회로 부각되고 있는 IT기술과 전통산업, BT/NT 등 차세대 성장산업과의 융합(예 : IT산업+자동차 = 텔레매틱스, IT+BT = 바이오인포메틱스, 바이오칩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이오칩, 생물정보공학, 초전력 나노소자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 창출을 위해 IT기반 BT/NT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력 IT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네트워크 구축

단말기 핵심 칩,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앞으로도 계속 시장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GRID사업을 통해 지리적으로 분산 설치된 고성능 컴퓨터와 첨단 과학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산업계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IT 인력양성 추진

S/W학과를 중심으로 IT관련 학과의 정원확대를 지원하고, IT전문교육을 실시하여 IT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한편 전경련 등과 협력하여 산업체 수요가 많은 교과목 중심으로 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IT기술과 타 산업분야의 융합 및 접목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의 학제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S/W 및 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 지원

▲ S/W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S/W계약제도 개선 및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S/W 사업자 평가기법을 도입(한국은 CMM Level 2 이상업체가 삼성 SDS, LG EDS, Handy Soft 등 7개업체인 반면,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57개사에 불과한 Level 5업체 중 36개를 차지)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투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원체계 정

비를 위해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보호법을 시행(2002. 7)할 예정이다.

▲ 디지털 TV, IMT-2000 등 새로운 미디어 관련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

디지털 방송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보급형 TV를 개발하여 DTV 10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수출전략을 상품화하고, 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2005년까지 시설투자비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비를 지원(올해 550억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년간 생산은 113조원, 수출은 268억불, 고용은 21만 4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S/W 등 혁신적 벤처기업의 성장 인프라 조성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S/W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국적인 S/W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IT 벤처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나스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상품과 신시장 개척 등 IT 수출 확대

▲ CDMA 등 수출 전략품목 발굴 수출상품화 추진

특히 올해 개최되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지원하여, 우리 IT기술력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한다.

▲ 초고속 인터넷 구축 기술과 경험 상품화 추진

외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서비스·장비·콘텐츠 등을 통합 제공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 SI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TDX와 CDMA를 잇는 국내 IT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동남아, 중국, 중동, 중남미 등 국가 정보화를 추진 중인 신흥시장에 SI산업의 진출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CDMA를 수출상품으로 육성

월드컵을 전후하여 아시아 IT장관회담, OECD 정보통신정책회의, APEC 전자정부 고위급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이동통신은 한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부각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베트남, 몽골 등에 확산되는 한류(韓流)를 활용하여 동북아 CDMA 벨트를 구축하고 중동,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여 세계 CDMA벨트 형성을 추진한다.

▲ I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진출 기반 강화

종합상사 출신 마케팅 인력 등을 IT마케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벤처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한민족 IT 네트워크와 국내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유통거점(Market Channel)을 구축할 계획이다.